

2025

설 가정예배
순서지



| SAESoon CHURCH |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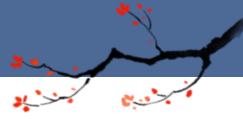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 후렴 >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신 6장 4-9절 교 독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 씬 인 도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4-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6-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을 전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3.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8-9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입니다. 설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나누는 대화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은 단순히 함께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에 새길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찬송가 405장 다 같 이

-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 령>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